

'타협'의 한국적 성장 소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2013***** 문화콘텐츠학과 김다운

1. 서론

개념과 그 범주를 설정하는 작업은 참으로 버거운 일이다. 그 중에서도 각각의 장르가 그 특징이나 성격이 유사한 경우, 두 장르 간의 차이점을 도출해서 장르를 구분하는 작업은 더 더욱 어렵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시가 문학 중 성장소설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국내의 경우 성장소설의 연구가 일찍부터 활발히 논의되어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연구도 심도 있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때문에 서양에서 논의되어온 '성장소설'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빌려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곤 하였는데, 소설에서의 장르라는 것이 탄생하고 발전함에 있어서 해당 사회의 사회상과 역사상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양의 개념을 국내 문학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예로 서양에서의 성장소설 또한 그 소설이 쓰인 나라의 사회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형성소설'이라 불리고, 독일의 경우는 교양에 초점이 맞춰져 '교양소설'이라 불린다.¹⁾ 위의 각각의 장르는 '성장'을 다루면서도 그 특징이나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명칭 또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사실 한국의 성장소설도 마찬가지이다. 7,80년대부터 그 개체가 많아진 국내의 성장소설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특수한 사회상과 역사에 따라 한국 성장소설만의 일련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위 독일의 교양소설과 프랑스의 형성소설과 같이, 국내의 성장소설은 한국만의 독특한 성장소설을 형성한 것이다.²⁾

때문에 본 글은 서양의 그것과는 다른 한국만의 성장소설의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국의 대표적 성장소설인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을 선정하여, 작품 내에서 나타나는 성장에 대해 분석을 하고 그를 토대로 서구의 교양소설과의 차이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본 글의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필자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필자는 인물의 성장 과정을 다루는 큰 맥락에서의 성장소설 범주 아래에, 일정한 특징을 가지는 하위 장르로서 교양소설과 한국의 성장소설이 존재한다는 입장임을 밝힌다. 또한 본 글의 논의를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인데, 하나의 작품의 특성을 '성장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점에서는 오류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마당깊은 집>을 '한국의 성장소설'의 대표 격으로 살펴보겠다.

또한 교양소설의 이론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존의 권위 있는 연구의 내용에 기대도록 한다. 또한 교양소설의 범주는 독일의 교양소설로 한정하도록 한다. 그 이유라면 필자는 위에서 밝혔듯이 성장소설이라는 큰 범주 아래에 하위 장르로 교양소설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며, 그것이 바로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교양소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글의 방향은 모두 밝혔고, 다음 장에서 독일의 교양소설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30쪽

2) 최현주, 앞의 책, 37쪽

2-1. 사회와의 화해 도모, 교양소설

19세기 유럽은 식민지 정책과 정치적 분위기가 안정화의 측면을 보이는 시대이다. 때문에 중산층이 부를 축적하고 시민사회가 안정화의 국면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그 때까지도 연맹국가가 서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등의 불안한 사회상을 보인다. 그리고 점점 개인주의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며, 불안한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독일 청년들은 조금씩 내면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사회상을 가진 당시 독일에서는 미완의 인격체인 당대 청년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소설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양소설'이다. 즉 사회에 반감을 가진 독일의 청년들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하나이 완성된 인격체가 되는 사회화의 과정을 거부하는 현상을 변화시키고자 함이 바로 교양소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겠다.

때문에 교양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겪는 성장의 과정은 사회화의 과정과도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교양소설 속에서의 주인공은 교양을 쌓으며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깨닫고,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회와 '화해'를 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성장에 도달하는 것이다.³⁾

이런 구조를 가진 교양소설의 주인공은 언제나 '객체'로서 존재한다. 즉, 주인공에게 가르침을 주는 인물이 존재하고, 주인공은 그러한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존재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동적인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은 가르침을 주는 주체적 인물을 긍정적인 성장모델⁴⁾로 삼고, 그를 따르며 사회에 적응한다.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주인공이 긍정적 성장모델을 통해 사회화를 한다는 점은 또한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던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이라는 것에서 교양소설의 한계점이 드러난다.

2-2. 한국적 성장소설 <마당깊은 집>과 독일 교양소설의 차이

한국적 성장소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6.25 전쟁 이후의 비참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소년 '길남'을 주인공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잘 드러낸 소설 작품이다. 작품 속 길남은 위채와 아래채로 나뉜 집에서 여섯 가정이 다닥다닥 모여 살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또한 이 집에서 살아가는 여러 인물들은 한국 전쟁에 대한 각기 다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데, 위채의 사람들은 전쟁 이후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는 '정신적 궁핍' 상태를 보이고 아래채의 사람들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물질적 궁핍' 상태를 보인다. <마당깊은 집>은 이러한 배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을 하는 길남을 그려낸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적 성장소설에서는 보편적으로 '아버지 부재' 모티프가 작용된다. 그리고 이 점은 <마당깊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길남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만 성장기 시절을 보내게 된다. 작품 속에서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자식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오는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 그리고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오는 무거운 책임감을 집안의 장남인 길

3) 이덕형, 「독일 교양문학 비판 시론」, 한국독어독문학회교육학회, 1990, 8쪽

4)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성장모델이라는 단어는 작품 속 주인공이 호의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성장의 과정을 배우게 되는 인물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주인공이 그 인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이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예시로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독일 교양소설에서 주인공인 '싱클레어'를 이끄는 '막스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있다.

남에게도 똑같이 요구한다. 길남의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삶'이 곧 세상의 온갖 핍박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고, 그 때문에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길남아, 내 말 잘 듣거라. 나는 인자 애비 읊는 이 집안의 장자다. 가난하다는 기 무신 천지,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이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니도 알제? 난리 겪으며 배를 철철 굶을 때, 니가 아무리 어렸기로서니 두 눈으로 가난 설움이 어떤 긴 줄 똑똑히 봤을 기다...(중략)"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용이 박힌 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그 말씀은, 입학기가 지난 뒤 나를 대구로 불러올렸을 때 이미 예정해둔 계산임이 분명했다.⁵⁾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길남의 어머니는 길남에게 장남의 역할을 강조하고, 아버지가 없는 현실에서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요하게 된다. '아버지 부재'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삶의 궁핍함을 어머니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음을 알고, 길남을 통해 채우려는 것이다. 때문에 길남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신문을 팔며 생계전선에 뛰어들게 된다. 하지만 길남의 입장에서는 학교도 못 다니고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 상황이 부당할 수밖에 없다. 또래 아이들과 같은 '일반적인 성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길남에게 있어서, 책임감을 강요하는 어머니의 행동은 충분한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

"신문을 팔지 못하겠거덩 그 돈으로 차비해서 다시 진영으로 내려가 술집 중노미가 되든 장돌뱅이가 되든 니 마음대로 해라." 어머니의 아귀찬 마지막 말을 떠올리자, 나는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길거리나 어슬렁거리다 돌아가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저녁밥을 굶기고, 어찌면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내쫓을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에게만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셨다.⁶⁾

길남의 어머니가 매몰차게 한 말 때문에 길남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인정하게 된다. 이는 어머니에 의한 길남의 '강제적인 사회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사회화의 과정들은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과 현실 도피 욕구를 생겨나게 한다. 하지만 길남이 행할 수 있는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작해야 가출 정도 밖에 없다. 때문에 길남은 매일 가출을 꿈꾸지만, 매번 수동적인 태도로 어머니의 뜻을 따르고 만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길남은 가출을 결심하게 되어 집을 나선다. 현실에서의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길남에 대한 사회화의 강요가 그를 강제적으로 사회와 '타협'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길남아, 길남아"

나는 눈을 떴다. 옆에 있던 거지 소년은 보이지 않았고, 내 앞에 검정 무명치마폭이 펼쳐져 있었다. 눈을 치켜뜨고 올려다보았다. 눈물 그렁한 슬픈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는 어머니 눈과 마주치자, 나는 부끄러워져 머리를 다시 무릎 사이에 처박았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가자. 집에 가자고."

어머니는 그 말만 하곤 앞장을 섰다. 어머니는 손에 쥔 손수건으로 물코를 팽 풀더니 눈언저리를 닦았다. 나는 어머니를 뒤따라 역 광장으로 나섰다. 어슴새벽으로 건물 위 하늘이 희부영게 터오

5) 김원일, <마당 깊은 집>, 문학과 지성, 1991년, 29쪽

6) 김원일, <마당 깊은 집>, 문학과 지성, 1991년, 32쪽

<사: 시대와 정신>

고 있었다. 나는 팔려가는 처량한 망아지 꼴이었고, 선례누나를 따라 대구로 올 때의 마음이 그랬다. 아니, 나는 나쁜 일을 한 뒤 숨어 다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가출한 길남을 데리러 온 어머니의 눈에 고이는 눈물을 본 길남은 마치 나쁜 일을 한 뒤 숨어 다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는 길남이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가 강요한 사회화의 노선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때문에 길남이 행한 가출은 성장기 청소년이 보일 수 있는 '정당한 반항'이 아닌, 가정을 책임져야 할 장남의 '철없는 행동'으로 변하고 만다. 가출이라는 큰 사건을 계기로, 계속해서 거부하던 일련의 사회화 과정을 결국 받아들이고야마는 이 지점은 길남의 어쩔 수 없는 사회와의 '타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3. '화해'의 교양소설, '타협'의 한국 성장소설

지금까지 소설 <마당깊은 집>에서 나타나는 성장소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앞으로는 위의 내용과 2장에서 다룬 교양소설의 특징을 토대로, 독일의 교양소설과 한국의 성장소설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겠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독일의 교양소설에는 주인공을 이끄는 긍정적 성장모델이 존재하는데 반해, <마당깊은 집>에는 길남을 이끄는 긍정적 성장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에게 일련의 성숙의 과정을 무시한 채, 무리한 사회화를 강요하는 인물이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실제로 한국 전쟁 이후는 당대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사회를 이끄는 뚜렷한 이념이나 따를 수 있는 인물이 없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마당깊은 집>의 작가 김원일은 이러한 지점을 아버지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아버지 부재' 모티프로 나타낸 것이다.

결국 독일의 교양소설과 한국의 성장소설은 혼란스러운 사회가 배경이 되었다는 지점만 같을 뿐이다. 때문에 뚜렷한 이념이나 성장모델이 존재했던 독일의 경우는 주인공이 상대적으로 올바른 사회화의 과정을 겪으며 반감을 가졌던 사회와 '화해'를 하게 되고, 반면 뚜렷한 본보기가 없던 한국의 성장소설은 주인공이 무리한 사회화의 과정을 겪으며 어쩔 수 없이 사회와 '타협'하게 된다.

또한 독일의 교양소설의 경우는 '창작 동기'가 당대 독일 청년들의 올바른 사회화에 있기 때문에, 작품 내에서 성장의 과정을 겪는 주인공은 결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완성된 인격체가 되는 과정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그려낸다. 그도 그럴 것이 완성된 인격체를 제시해야만 당대 독일의 청년들이 작품을 읽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소설은 주인공의 완성된 인격체로서의 면모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사회상과 연결 지어 살펴볼 때, 사회를 이끌만한 뚜렷한 이념이나 성장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원치 않던 강제적인 사회화'를 이루는 과정을 그려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딱히 완성된 인격체를 보여주지 않아도, 작품에서 그려내는 당대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독일의 교양소설과 <마당깊은 집>에 드러난 한국 성장소설을 통해 한국적 성장소설만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독일 교양소설의 지향점은 혼란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청

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응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성장소설은 한국만의 특수한 사회배경인 한국전쟁으로 인한 뚜렷한 이념과 성장모델이 부재한 현실을 청년의 '성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그려낸다. 작품 창작의 의도와 목적 차이는 곧 작품 내에서 일어나는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 '사회와의 화해로 이어지느냐, 강제적으로 타협하게 되느냐'로 나누어지게 된다. 또한 결말부에서 '주인공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을 그려내느냐, 그려내지 않느냐'로도 나누어진다.

결국 한국의 성장소설은 여타의 성장소설들과는 다르게, 주인공이 이념의 부재 속에서 납득가지 않는 사회화를 강요받게 되고, 개인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혼란을 겪는 과정을 그려낸다. 또한 그로 인하여 현실을 도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끝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강제적인 타협을 택하게 되는 구조를 보인다.

물론 성장소설로서 이러한 결론은 반감을 가지고 혼란을 겪었지만 결국 사회와 화해하고 귀속되는 결말을 띠는 독일 교양소설과 달리, 강제적 타협이라는 완성도가 미약한 성장을 보여줄 뿐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장소설은 안타까운 역사상에서 비롯되는 좌절과 타협 또한 한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내면적인 성장을 표현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학적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이덕형, 「독일 교양문학 비판 시론」,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1990
김원일, <마당 깊은 집>, 문학과 지성, 1991